훔쳐가는 원수, 벌게 하는 원수

(민31:1~54)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3.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4.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5.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6. 모세가 각 지파에 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7.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8.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브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9.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 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10.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11.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12.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오늘 31장 본문을 가지고 <훔쳐 가는 원수, 벌게 하는 원수>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훔쳐가는 원수, 벌게 하는 원수'

훔쳐가는 원수는 사실 원수가 아니고 별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가치들을 벌게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돈인데 '돈 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원수인데, 용서가 안 되고 반드시 무찔러야 하는 원수라는 것입니다. 내 돈을 훔쳐가는 원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원수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는 원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

는 '여호와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선민의 원수이며 반드시 무찔러야 하는 원수'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 누구입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중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이죠. 이 휴전중인 상태에서의 주적은 북한이며, 우리 군이 주적의 개념을 분명히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의 적은 북한군과 북한예비전력,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노동당, 그리고 북한정권기관과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큰 틀에서 북한이 주적인데 사실은 북녘동포는 인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주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통일을 향해 우리가 가야할 길을 생각하면 그 길에 포용되어야 될 대상들이죠. 또 2만 8천여 명 탈북자 중에서 북한 군대와 노동당의 간부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의 폭정에 두려움을 갖고 어쩔 수 없이 굽실거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을 멸절시키지 못해서 이를 가는 주적은 실제로 많지 않으므로 주적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주적을 가려내지를 못하는데 주적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상대로 싸워야 하느냐는 이 주적의 개념이 불분명하므로 맨날 기성교단에서 정해놓은 이단들을 향해서만 주적의 개념을 적용시키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단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맥이 풀리고 활력을 잃은 이유는 교회 안에 주적이 있는데, 주적의 개념이 분명치 않고 그 주적들이 교회 안에서 활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찔러야 할 주적을 추종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가 활력을 잃어가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하시는데, 이 전쟁은 요단강을 건너서 복지를 쟁취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2절에서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칭하고 3절에서는 '여호와의 원수'라고 합니다. 이유는 25장에서 보았듯이 바알브올에서 메소포타미아 복술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간계로 신탁을 내려 저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다가 뜻대로 안 되니 발락에게 간계를 가르쳐주는데,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끌어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여호와의 선민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바알 신이 풍요와 다산을 관장한다는 의미가 뜻하는 바대로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부흥하는 열망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 열망을 자극하고 그것을 강화시키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바알 숭배 의식에서 반드시 행하게 되는 다산을 상징하는 음행의 일을 하도록 간계를 가르쳐주었고, 모압 왕 발락은 이 간계를 실행하기 위해 미디안 여자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미인계를 써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숭배 제의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로 부르시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라고 부르시게 된 이유입니다.

이 원수들을 다 죽이고 엄청난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또한 여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그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를 아는 여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 '남자를 안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거의 예외 없이 바알 숭배의 제의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게 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는 다 죽였고, 남자를 아는 여자도 죽였고 처녀와 여자 아이들만을 전리품로 남겨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사람에 대한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참혹한 전쟁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설교의 내용이 있으신 것입니다.

인류역사의 거의 모든 전쟁은 영토를 확장하고, 상대편 적국에 있는 자원이나 물자나 하다못해 여자라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과의 전쟁의 이유는 원수 무찌르기였습니다. 여호와의 원수, 선민에게만 원수가 되는 이유를 갖고 있는 자들을 무찌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달리 원수가 될 이유가 없는데 선민에게 원수가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찔렀던 것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하셨고 3절에는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하시면서 '원수'라는 단어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미디안 전쟁이 주는 의미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감에 있어서 가나안 족속과 치르게 될 전쟁은 근본적으로 복지 쟁탈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원수 갚기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고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인데 그 결과로서 복지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엄청난 전리품이 나오는데 양이 60만 마리가 넘고… 이런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목적으로 치룬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를 치는 전쟁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생긴 것인데,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선민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원수를 무찌르기 위함인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무찌르면 무수한 전리품이 주어졌던 것처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육체가 있음으로 인한 필요함을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전리품을 위해서 싸웁니다. 이것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주어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수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주적의 기준과 개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원수는 누구이고 내가 무찔러야 할 원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에 무찔러야 될 대상으로 마귀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뿔 달린 채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원수 짓거리를 합니다. 사람 중에 여호와의 원수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분명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원수 찾기가 힘이 드느냐면, 우리는 내 돈을 훔쳐가는 자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원수의 개념에 의한

주적은 나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는 자인데, 현재 우리의 모자라는 상태에서 볼 때에는 원수를 찾아내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살아있는 내 몸이 죽게 될 때에 없어질 것들을 훔쳐가거나 해를 끼치는 모든 원수들은 내가 사랑해야 될 원수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앙적 도덕성이 극한으로 발전한 상태의 의미로 생각하고, 최고조의 신앙적 도덕의 상태이고 최고조의 신앙적 덕성을 갖춘 상태로 인격적인 발전의 결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원수사랑은 상당한 신앙의 논리적 귀결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하늘에 계시고 내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내 몸이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 내 몸이 없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훔쳐가고 해를 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인간 세상에서의 내 명예나 자존심 같은 추상적인 것들까지도 해치는 자들을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원수들은 근본적인 나의 기쁨과 만족의 이유에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이면에는 '너희가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지 않는 자는 내게 속해 있는 세상 것을 가져가는 원수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순교하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은 것은 이 육체도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너는 아직도 이 몸이 있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들에서 너의 만족과 기쁨을 기대하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원수가 무찔러야 될 원수인지 답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적의 개념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바알브올의 사건이 나왔던 25장부터 30장까지의 이야기를 다 투자하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복지에 진군하여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 전쟁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인데 땅을 주시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않고도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애굽에 내리신 열 가지 재앙으로 치시면 다 죽는 것입니다. 왜 굳이 전쟁을 하게 하십니까? 전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복지를 차지하고 전리품을 획득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를 치라'는 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알브올의 사건으로부터 30장까지를 끌고 가신 것입니다. 바알브올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한 것은 바알브올 사건에서 전쟁의 이유가 발생했고, 31장에서 바알브올의 사건으로 인한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고 하시는데 바로 발람으로 대표되고 있는 원수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라"고 했습니다. 하

나님을 위하라는 명목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선민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민이라도 몸을 입고 사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몸의 5감관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침 흘리며 가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은 경향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과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좋을 수밖에 없고, 건강이 최고일 수밖에 없고, 인간 세상에서 정해 놓은 성공과 형통을 원할 수밖에 없고 높은 자리를 원할 수밖에 없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성향을 자극하고 활성화 시키는 자로 나타난 결과는, 뱀의 유전자를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서 배를 땅에 붙이고 다니듯이 이 땅을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을 향한다.'는 것은 이 '땅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의 이유를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발람이고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마음의 시선을 드려야 될 선민들에게 이 세상을 향한 성향을 자극시키고 활성화시킴으로서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민들이 아닌 자들은 다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전략을 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에게 세상을 향하게 하는 마귀의 고도의 전략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당을 지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여전도회장으로, 임원으로 봉사하면서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매일 모여서 그 일에 마음을 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마르다 생산 공장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최고 전략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살라고 설교는 하지만 이 지상의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마음을 쏟게 하고,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다 발람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고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이 여호와의 원수들이 하는 일이 바로 발람의 간교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좋아하려는 성향을 미디안 여자들을 통해 자극시킨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면 이왕이면 부자로 살고 부흥하며 사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결국 여호와도 너희를 잘 살게 하려고 복지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냐? 바알도 너희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그대로 설교 속에 옮겨지게 됩니다. 온갖 이야기로 가장하고 꾸미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풍요와 다산에 이를 수 있다'고 교인들의 마음의 시선을 향하게 합니다. 거기에 십자가 복음 이야기도 들어가고 죄 사함의 이야기도 들어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 하는가를 보세요. 땅을 향하게 한다면 그는 발람의 후손이고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그 여호와의 원수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모르기 때문에 원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단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이단으로 확정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외적 구분이 가는 존재들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가 주적의 개념을 잃고 주적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수사랑은 우리 몸이 죽으면 없어질 의미 없는 가치들을 훔쳐가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있는 동안에 이미 몸이 만날 수 있는 세계를 떠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의 기업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되심을 확인하려 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논리대로 말을 하자면, 이 세상에서 내 몸이 있으면서 의미가 있을 가치들을 훔쳐가는 자들이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원수가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 말씀하시는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땅을 생각하는 자와 하늘을 생각하는 자로 딱 구분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원수의 개념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 사함의 사건으로 십자가를 국한 시켜서 십자가를 기점으로 마음이 다시 세상을 향하도록 이끌고, 세상을 향한 돈, 건강, 형통, 부흥, 건강 등의 바람의 성향을 자극시켜서 교인을 이끌려고 하는 자가 여호와의 적입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기점으로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도록 말하고 이끄는 자들이 참 신앙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로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구원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몸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전리품들은 여호와의 원수를 쳐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모두는 전리품을 향해 가고 있고, 발람이 가르친 것도 전리품을 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선민의 마음을 땅으로 향하게 해서 땅에서 불통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데 이 말을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게 멍청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땅을 향해 있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안 벌리니 사탄이 끼어있다고 생각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데 건드리지 않아도 사탄 뜻대로 되어가니 그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만일 목사님이 매일 우리 마음을 땅을 향하게 하는 설교를 하시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기도 제목으로 사업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말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교회에 가면 나을 것 같습니까? 100 교회 옮겨 다니면 한 교회 정도 목사님의 말씀이 하늘을 지향할지언정 99 교회는 땅을 향한 발람의 뒤를 따르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목사님 자신도 한 번도 '여호와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라는

주적의 개념에 명확하게 깨달아 보신 적이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한 번 되어보겠다고 그저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를 따라서 목회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적의 개념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다른 교회를 가 보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수진을 쳐야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주기도가 목사님과 장로님께 적용되도록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드리는 것입니다.
'배수진'은 뒤에 강을 두고 진을 쳐서 도망갈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나라의 한신이 조나라와 싸울 때에 배수진을 쳐서 부하들이 도망을 못 가게 사활을 걸고 싸우게 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다니는 지역교회에서 빠져나와도 영적으로 크게 다른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거기에서 십자가 복음의 원리를 따라 내 스스로가 살면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원수 갚기를 하려고 목사님을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은 원수 갚기가 아닙니다. 차라리 핍박을 받는 것이 신약적 원수 갚기의 싸움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싸움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채로 여호와의 원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는 싸움을 하고 원수치기를 하면, 저의 확신대로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서 내 몸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건들, 필수품들, 전리품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다 챙겨주실 것입니다. 회사에 나가서도 이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모른 채 땅을 사는 자들도 뱀의 노예가 된 자들이고 교회 안에도 여호와의 적들이 있습니다. 이 주적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마음이 땅을 향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호와 원수 치기의 싸움을 해나간다면, 오늘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생긴 것처럼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된 활동은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훔쳐가는 원수는 사랑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를 벌게 해주려는 원수를 여호와의 원수로 포착하여 무찌르는 기도의 전쟁에 우리의 모든 일과를 바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